

천회의원(天回醫簡)의 경맥병증에 관한 고찰

나창수¹, 김기왕^{2*}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2.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meridian related symptoms in Tianhuiyijian (天回醫簡)

Changsu Na¹, Kiwang Kim²

1 Dept.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Recently, the full text of the Han Dynasty document Tianhuiyijian (天回醫簡), excavated in Chengdu, Sichuan, China is published. The publication of the text has allowed us to analyze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in the text, which have been poorly understood. In this paper, we report our preliminary findings.

Methods

By comparing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Shierjingmai* (十二經脈) included in the *Tianhuiyijian*, with those of *Yinyangshiyimaijiujing* (陰陽十一脈灸經) and other meridian-related texts of the Western Han dynasty and those of the *Jingmai* (經脈) in *Huangdineijing Lingshu* (黃帝內經靈樞), the compositional features of the *Shierjingmai* meridian-related symptoms were extracted.

Results and conclusions

It is shown that the symptoms in *Tianhuiyijian* are the mixed results of so called *Shidongbing* (是動病) and *Suoshengbing* (所生病). A similar case is shown in *Maihai* (脈解) in *Huangdineijing Suwen* (黃帝內經素問). The symptoms in *Tianhuiyijian* also infer to unknown origins of *Suoshengbing*.

Key words

Tianhuiyijian, Twelve meridians, meridian-related symptoms, *Huangdineijing*, *Shidongbing*, *Suoshengbing*.

* 교신저자 : Kiwang Kim /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50612.

Tel: +82-51-510-8466, Fax: +82-51-510-8420, E-mail: kimgiwang@hanmail.net

• 원고접수일 : 2023. 08.24 / 심사완료일 : 2023. 09.05 / 게재결정일 : 2023. 09.12

I. 서론

경락 이론의 전거(典據)라 할 수 있는 『황제내경·영추(黃帝內經·靈樞)』의 「경맥(經脈)」편에는 12개 경맥의 연관 증상이 등장한다. 이들은 소위 시동병(是動病)과 소생병(所生病)이란 두 부류의 증상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경맥 연관 증상, 즉 경맥병증(經脈病症)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오래도록 주목할 만한 논의가 없었으나 근래에 각종 출토문헌을 통해 『황제내경』 이전에 출현한 경락 이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연구에 큰 도움을 주리라 예상되는 문헌이 새로 발굴되었는데, 바로 2012년 중국 사천성 성도시의 천회진(天回鎮)에서 발굴된 천회의학간(天回醫簡)¹⁾이 그것이다. 이 문헌에는 성격을 달리 하는 여러 종의 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3종의 경락 관련 문헌²⁾이 있어 『황제내경·영추』의 「경맥」편에 등장하는 경락 이론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밝히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천회의학간 발굴 이후 10년 이상 그 문헌 전문(全文)이 공개되지 않았고³⁾ 조금씩 노출되었던 경맥 주행 묘사 부분과 달리 각 경맥의 경맥병증을 수록한 부분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도 발표된 바 없었다.

이제 천회의학간의 전문이 공개되었으므로 그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천회의학간의

경맥병증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천회의학간 경맥병증의 연구는 『황제내경』의 시동병과 소생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밝혀줄 토대가 될 것이다.

II. 재료와 방법

『천회의학간』⁴⁾의 『맥서·하경(脈書·下經)』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십이경맥(十二經脈)」에 수록된 경맥병증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천회의학간』의 또다른 경락 문헌인 「간별맥(間別脈)」, 「경맥(經脈)」의 경맥병증을 고찰하였다.

경락 이론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황제내경』 성립 이전의 문헌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경맥병증이 수록된 전한대(前漢代) 문헌인 『맥서(脈書)』⁵⁾, 『족비십일맥구경(足臂十一脈灸經)』,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⁶⁾의 관련 조문을 『천회의학간』의 「십이경맥」, 「경맥」, 그리고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시동병, 소생병 조문과 상호 비교하여 그 이동(異同)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동병의 또다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인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의 「맥해」편⁷⁾에서 경맥병증 인용문을 추출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천회의학간』에는 「십이경맥」, 「경맥」 이외에 「간별맥」이라는 또다른 경맥 문헌이 포함

1) 출토 이후 “노관산의학간(老官山醫簡)”, “노관산의서(老官山醫書)” 등으로도 불렸으나 본 논고에서는 문헌 정리조가 최근 확정된 명칭인 “천회의학간(天回醫簡)”으로 이를 지칭하기로 한다.

2) 현재 「십이경맥」, 「간별맥(間別脈)」(이 둘은 『맥서·하경』의 일부), 「경맥」이란 이름으로 명명된 3종의 문헌이다.

3) 2023년 2월 27일文物출판사(文物出版社)에서 『천회의학간(天回醫簡)』이란 이름의 서적을 출간하여 원문 전체가 공개되었다. 『천회의학간』 판권 면에는 2022년 11월 출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마지막 교정이 끝나고 대중에 공개된 시점은 2023년 2월 27일이다.

4) 天回醫簡整理組. 天回醫簡. 北京. 文物出版社. 2022.

5) 高大倫. 張家山漢簡《脈書》校釋. 成都. 成都出版社. 1992.

6) 『족비십일맥구경』, 『음양십일맥구경』이 두 문헌의 원문은 다음의 서적으로부터 인용하였다: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7) 「맥해」편은 삼음삼양 6개 경맥에 대해 설명한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락에서 “所謂××者, ……也”라는 형식으로 미지의 원전에서 인용한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을 모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것이 대체로 하지 6개 경맥의 시동병(是動病)을 설명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문헌에 수록된 경맥병증은 『황제내경』의 시동병, 소생병과 크게 다르고, 현재로서 그 연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증상군이다. 본 논고에서 「간별맥」의 경맥병증은 다른 문헌과의 대조 없이, 간단히 그 내용만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으로서, 특별한 비교나 해석 없이 표 3에 각각의 명칭, 주행 경로, 관련 병증을 수록하였다.

III. 결과

시동병, 소생병과 관련된 증상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인 『족비십일맥구경』, 『맥서』, 『음양십일맥구경』과 천회의간 중 『맥서·하경』에 수록된 「십이경맥」, 『황제내경·영추』의 「경맥」편, 『황제내경·소문』의 「맥해」편에서 경맥병증을 설명한 단락의 원문을 그림 1(Figure 1) ~ 그림 5(Figure 5)에 나타내었다. 원문의 증상 표현을 문헌간 비교해 보면 이들이 몇 가지 계통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는데 각 그림의 범례에 이들의 계통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림 1~5에 표시한 증상들의 계통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계승 관계를 그림 6(Figure 6)에 표시하였다⁸⁾. 그림 6에 표시한 한대 문헌의 경맥병증 계통에 대해서는 본 논고의 고찰 단락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천회의간』에는 「십이경맥」 외에도 경맥에 대해 설명한 문헌이 2종 더 있다. 하나는 「간별맥(間別脈)」(『맥서·하경』에 수록)이라는 문헌이며 다른 하나는 「경맥(經脈)」이라는 문헌이다(문서 제목은 모두 정리자들이 부여한 것). 두 문헌 모두 각각의 경맥 계통과 연관된 경맥병증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표 1(Table 1) ~ 표 3(Table 3)에 정리하였다. 천회의간 「경맥」은 훼손된 부분이 많아 그 중 상대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3개 경맥의 경맥병증에 대해서만 표 2(Table 2)에서 여타의 한대 문헌과 비교하였다. 「간별맥」은 천회의간에 처음 보이는 경맥 계통

8) 그림의 문자를 포함하여 본 논고의 출토문헌 문자는 가차자를 모두 정자(본자)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수태음폐경		법례: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經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육비삼음맥구경			心痛, 心煩而噫 ※“其病”
맥서		心影影如痛, 缺□	胸痛, 腎痛, 心痛, 四末痛, 癢
음양삼음맥구경 (갑·을본)		心影影如痛, 缺盆痛, 甚則交兩手而戰	胸痛, 臍痛, 心痛, 四末痛, 癢
편희의간·심이경맥		心滯滯痛, 詐肩痛, 胸痛, 癢, 肘痛, 心煩, 疔, 缺盆痛, 四肢痛, 甚則交手而戰, 此爲腎瘕, 膈痛	
영주경맥		肺脹滿, 影影而喘欬,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臂	欬上氣, 喘渴, 煩心, 胸滿, 臍腎內前廉痛厥, 掌中熱

수양명대장경		법례: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經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천회의간과 영주에만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육비삼음맥구경			齒痛, □□□□ ※“其病”
맥서		齒痛, 頤腫	齒痛, 頤腫, 目黃, 口乾, 臍痛
음양삼음맥구경 (갑·을본)		齒痛, 頤腫	齒痛, 頤腫, 目黃, 口乾, 臍痛, 爲五病, 及□□
편희의간·심이경맥		齒齲痛, 口辟, 頤腫, 目黃, 口肩乾, 喉痺, 鼻乾, 肩前廉痛, 臍痛, 臂上廉痛, 大指與次指痺, 頰痛, 銛銛, 善笑, 善循面□	
영주경맥		齒痛, 頸腫	目黃, 口乾, 飢衄, 喉痺, 肩前、臍痛, 大指次指痛不用

수소음심경		법례: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經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천회의간과 영주에만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육비삼음맥구경			脇痛 ※“其病”
맥서		心痛, 脇滿欲飲	脇痛
음양삼음맥구경 (갑·을본)		心痛, 脇乾欲飲	脇痛
편희의간·심이경맥		心痛, 脇乾, 瘕飲, 脇痛, 臍陰痛, 手無氣。瘕瘕但音。	
영주경맥		脇乾, 心痛, 渴而欲飲	目黃, 脇痛, 臍腎內後廉痛厥, 掌中熱痛

Figure 1.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hand Taiyin, Yangming, Shaoyin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 represents one character not identified.
 한대 의학 문헌에 기술된 수태음경(手太陰經), 수양명경(手陽明經), 수소음경(手少陰經)의 경맥병증. □는 판독되지 못한 글자. 이하에서도 같음.

수태양소생경 목비십음맥구경 맥서 음양십음맥구경 (상·하본) 천회와간 십이경맥 영주경맥	시동병 頰腫痛, 不可以鍼, 病似脫, 腫似折 嗌痛, 頰腫, 不可以鍼, 病似脫, 腫似折 頰腫痛, 喉、皆痛, 狀痛, 病似舌, 腫痛, 肘痛, 頰痛, 臂外痛, 手背痛 嗌痛, 頰腫, 不可以鍼, 病似縫, 腫似折	소생병 臂外廉痛 ※“其病” 頰痛, 喉痹*, 肩痛, 肘外痛 * 원문 표기는 “蹠” 頰痛, 喉痹, 臂痛, 肘痛 耳聾, 目黃, 頰腫, 頸、頰、肩、臑、肘、臂外後廉痛
수궤음심포경 목비십음맥구경 맥서 음양십음맥구경 (상·하본) 천회와간 십이경맥 영주경맥	시동병 手熱, 肘掣, 腋痛, 心痛 手心熱, 腎肘掣急, 腋腫; 甚則胸脇支滿, 心中憊憊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소생병 煩心, 心痛, 掌中熱
수소양삼초경 목비십음맥구경 맥서 음양십음맥구경 (상·하본) 천회와간 십이경맥 영주경맥	시동병 耳鳴耳鳴鳴, 聾腫 耳聾耳鳴鳴, 聾腫 ☒ 與頰痛, 聽後痛, 聾, 肩痛, 頰痛, 目外廉痛, 臑痛, 肘痛, 臂外廉痛 耳聾耳鳴鳴, 聾腫, 喉痺	소생병 產聾, 頰痛 ※“其病” 目外際痛, 頰痛, 耳聾 目外皆痛, 頰痛, 耳聾 汗出, 目眦皆痛, 頰痛, 耳後、肩、臑、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Figure 2.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hand Taiyang, Jueyin, Shaoyang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한대 의학 문헌에 기술된 수태양경(手太陽經), 수厥음경(手厥陰經), 수소양경(手少陽經)의 경맥병증.

족양명위경		법례: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經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천회의간과 영주에만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 비십일맥구경과 천회의간, 영주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십일맥구경		足中指痛, 肝痛, 膝中痛, 腹痛, 乳内廉痛, □外腫, 頰痛, 鼯鼻, 數癰, 熱汗出, 腫瘦, 顏寒 ※ “其病”
역서	酒酒而寒, 喜伸, 數欠, 頰黑, 病至, 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驚, 心惕然欲獨閉戶牖而處, 病甚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顏痛, 鼻鼯, 頰疾, 乳痛, 腎痛, 心與肱痛, 腹外腫, 腸痛, 膝外、跗上、踝
음양십일맥구경 (간·음분)	酒酒而寒, 喜伸, 數欠, 頰黑, 病至,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驚, 心惕然欲獨閉戶牖而處, 病甚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顏痛, 鼻鼯, 頰頸痛, 乳痛, 心與肱痛, 腹外腫, 腸痛, 膝、足痿痹
천회의간·십이경맥	酒酒而寒, 喜伸, 數欠, 頰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驚, 心惕然欲獨閉戶牖而處, 病甚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目醇, 頰口痛, 鼻鼯, 齒痛, 口辟, 頰疾, 喉痺, 膈痛, 癰, 胸亂, 乳痛, 心與肱痛, 腹外腫, 膈脹, 氣折, 佩痛, 魚股痛, 膝寒痛, 肝前痛, 足口上痛, 中道痛, 日痛, 腎痛, 噓外痛, 風水, 瘰癧, 熱汗出, 面縱, □陰, 善笑, 善擗面, 面痛, 頰痛, 癰癰而善頰.	狂毒溫淫, 汗出, 鼯鼻, 口鳴, 腎疼, 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痛, 循膈、乳、氣街、股、伏兔、肝外廉、足跗上皆痛, 中道不用
영주·경맥	酒酒而寒, 喜伸, 數欠, 頰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驚, 心惕然欲獨閉戶牖而處, 病甚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哀響, 腹脹	
소문·역맥	酒酒而寒, 經腫而股不收, 上喘而爲水, 胸痛少氣, 甚則厥, 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驚, 欲獨閉戶牖而處, 病至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客孫脈, 則頭痛, 鼻鼯, 腹腫.	

족태음경		법례: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經 영주에 보이지 않고 소문에 보이는 시동병 經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 비십일맥구경과 천회의간, 영주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 비십일맥구경과 소문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십일맥구경		足大指痛, 肝内廉痛, 股内痛, 腹痛, 腹脹, 復□, 不嗜食, 善噦, 心煩, 善肘 ※ “其病”
역서	上走心, 使腹脹, □□□□□□□□□□	□獨心煩死; □□□腹脹, 死; 不能食、者卧、强吹, 此三者同則死; 澹泄, 死; 水與閉同則死.
음양십일맥구경 (간·음분)	上當走心, 使腹脹, 善噦, 食則欲嘔, 得後與氣則快然衰	□□, 心煩, 死; 心痛與腹脹, 死; 不能食、不能卧、强吹, 三者同則死; 澹泄, 死; 水與閉同則死.
천회의간·십이경맥	心痛, 心盈, 煩心, 詢謙□□腹□□腸惟□□□□□□得後與氣則快然, 不嗜食, 嘔, 水, 閉, 善怒, 心惕, 善悲, 善恐, 不嗜卧, 强欠, 三者同, 死. 澹泄, 後□不收, 死. 水與閉同, 死.	
영주·경맥	舌本強, 食則嘔, 胃脘痛, 腹脹, 善噦,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身體皆重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澹泄泄, 水, 閉, 黃疸, 不能臥, 強立, 股膝内腫厥, 足大指不用
소문·역맥	病脹, 上走心爲噦, 食則嘔, 得後與氣則快然如衰	

Figure 3.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foot Yangming and Taiyin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한대 의학 문헌에 기술된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음경(足太陰經)의 경맥병증.

족태양방광경		법해: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症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비삽입백구경과 천회의간, 영추, 소문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비삽입 백구경과 소문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삽입백구경		足小指廢, 腦痛, 郄攣, 腦痛, 產痔, 腰痛, 挾脊痛, □痛, 項痛, 手痛, 顏寒, 產瘰, 目痛, 齒痛, 齒痛疾 ※“其病”	
역서	衄衄, 目似脫, 項似拔, 胸痛, 腰似折, 脾不可運, 衄如結, 腦如裂	頭痛, 耳聾, 項痛, 溺強, 瘰, 背痛, 腰痛, 尻痛, 痔, 肱痛, 腦痛, 足小指蹠	
음양삽입백구경 (간·경·신)	腫, 頭痛, □□□□背痛, 腰似折, 脾不可以運, 衄如結, 腦如裂	頭痛, 耳聾, 項痛, 耳強, 瘰, 背痛, 腰痛, 尻痛, 痔, 郄痛, 腦痛, 足小指瘡	
천회의간 삽입경맥	胸亂, 顏痛, 齒痛, 頭痛, 背痛, 交臂痛, 脊強, 腰痛, 尻痛, 痔, 州痛, 郄痛, 腦痛, 踵與蹠痛, 足小指痛, 齒痛, 回目, 目眇如母兒, 減目, 目眇, 衄衄, 瘰, 風		
영추·경맥	衄衄痛, 目似脫, 項似拔, 背痛, 腰似折, 脾不可以齒, 衄如結, 腦如裂	痔, 瘰, 齒痛, 頭痛, 項痛, 目黃, 淚出, 項、背、腰、尻、腦痛、脚皆痛, 小指不用	
소문·역맥	腫腰, 瘰, 病偏虛爲跛, 強上引背, 耳鳴, 甚則齒痛, 浮爲瘰, 入中爲瘰, 內奪而厥, 則爲瘰俳		

족소음신경		법해: 經 교차 수록된 시동병 症 영추에 보이지 않고 소문에 보이는 시동병 症 교차 수록된 소생병 經 經비삽입백구경과 영추에 교차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삽입백구경		足熱, 脾內痛, 股肉痛, 腹街、脊肉痛, 肝痛, 心痛, 煩心, 渴□□□□舌垢□痛, 上氣□數喝, 默默嗜臥以咳 ※“其病”	
역서	怫怫如亂, 坐而起則目眩如無見, 心如懸, 病飢, 氣不足, 善怒, 心憊憊恐人將捕之, 不欲食, 面黯若地色, 欬則有血	口熱, 舌拆, 腦乾, 上氣, 噎, 噎中痛, 瘰, 書臥, 咳, 瘰	
음양삽입백구경 (간·음·신)	噎噎如喘, 坐而起則目眩如母兒, 心如懸, 病飢, 氣不足, 善怒, 心憊, 恐人將捕之, 不欲食, 面黯若地色, 欬則有血	口熱, 舌拆, 腦乾, 上氣, 噎, 噎中痛, 瘰, 嗜臥, 欬, 瘰	
천회의간 삽입경맥	口熱, □□, □□痛, 舌垢痛, □痛, 上氣, 消瘰, 腎瘰, 不汗, 默默嗜臥, 欬, 窮詘, 坐而起則目眩如母兒, 心如懸, □□病飢, 不嗜食, 善□歎歎不已, 氣喘□□□□□□□□□□面黯黑, 欬則□血		
영추·경맥	饑不欲食, 面如漆柴, 欬則有血, 噎噎而喘, 坐而起則目眩如無所見, 心如懸若鐵狀. 氣不足則善怒, 心憊憊恐人將捕之.	口熱, 舌乾, 咽腫, 上氣, 腦乾及痛, 煩心, 心痛, 黃直, 腸澀, 脊、股肉後痛, 瘰厥, 嗜臥, 足下熱而痛	
소문·역맥	腰痛, 嘔, 欬, 上氣, 喘, 邑邑不能久立, 坐而起則目眩如無所見, 少氣, 善怒, 恐人將捕之, 惡聞食臭, 面黯如地色, 欬則有血		

Figure 4.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foot Taiyang and Shaoyin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한대 의학 문헌에 기술된 족태양경(足太陽經)과 족소음경(足少陰經)의 경맥병증.

족소양담경		법제: 經 교자 수록된 시동병 症 교자 수록된 소생병 經 족비십일맥구경과 천회의간, 영주에 교자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십일맥구경			病足小指次指痛 肝外廉痛, 肝寒, 膝外廉痛, 股外廉痛, 脾外廉痛, 脇痛, □痛, 產婦 缺盆痛, 瘰, 瘰, 枕痛, 耳前痛, 目外眦痛, 腦外腫 ※“其病”
역서		心與脇痛, 不可以反側, 甚則無膏, 足外反	□□痛, □痛, 項痛, 脇痛, 瘰, 汗出, 節盡痛, 脾廉痛, 魚股痛, 膝外廉痛, 振寒, 足中指痹。溫。
음양십일맥구경 (감·음본)		心與脇痛, 不可以反側, 甚則無膏, 足外反	□□□頭項痛, 脇痛, 瘰, 汗出, 節盡痛, 脾外廉痛, □痛, 股痛, 膝外廉痛, 振寒, 足中指痹
천회의간 십이경맥		足小指之次指痛 足附上廉痛, 外踝前痛, 脛外廉痛, 膝、魚股外廉痛, 脾痛, 脇痛, 胸痛, 不可以反側, 甚則胸脇爲盈, 妨心, 汗出, 無膏, 腫脇, 足外反。腋痛, 頸痛, 耳前痛, 頰痛, 瘰, 衄, 目外眦痛, 頭角痛, 振寒, 瘰, 頭痛, 百節痛, 癰癢。	頭痛, 頰痛, 目銳眦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瘰, 汗出振寒, 瘰, 脇肋、脾、膝外至脛、絕骨、外踝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
영주·경맥		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소문·맥맥		心脇痛, 不可反側, 甚則躍	
족궤음간경		법제: 經 교자 수록된 시동병 症 교자 수록된 소생병 經 족비십일맥구경과 천회의간, 영주에 교자 수록된 소생병 經 역구경과 소문 經 교자 수록된 소생병 經 逆서, 음양십일맥구경과 소문 經 교자 수록된 소생병	
		시동병	소생병
족비십일맥구경			病腔瘦, 多渴, 嗜飲, 足跗腫, 疾痹 ※“其病”
역서		丈夫則癰疽, 婦人則少腹重, 腰痛不可以仰, 則眩乾, 面黃	熱中, 癰, 瘰, 偏疝
음양십일맥구경 (감·음본)		丈夫癰疽, 婦人則少腹重, 腰痛不可以仰, 甚則眩乾, 面黃	熱中, 癰, 瘰, 偏疝, □□
천회의간 십이경맥		丈夫則癰疽□, 婦人則少腹重痛, 腰痛不可以□仰。善飲, 甚則眩乾, 面黃, 善渴, 足跗腫 □	
영주·경맥		腰痛不可以仰, 丈夫癰疽, 婦人少腹重; 甚則眩乾, 面黃, 脫色	胸滿, 嘔逆, 泄瀉, 狐疝, 遺精, 閉癰
소문·맥맥		癰疽, 婦人少腹重, 腰脊痛不可以仰, 瘰, 瘰, 疝, 膚脹, 甚則眩乾, 熱中	

Figure 5.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foot Shaoyang and Jueyin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한대 의학 문헌에 기술된 족소양경(足少陽經)과 족궤음경(足厥陰經)의 경맥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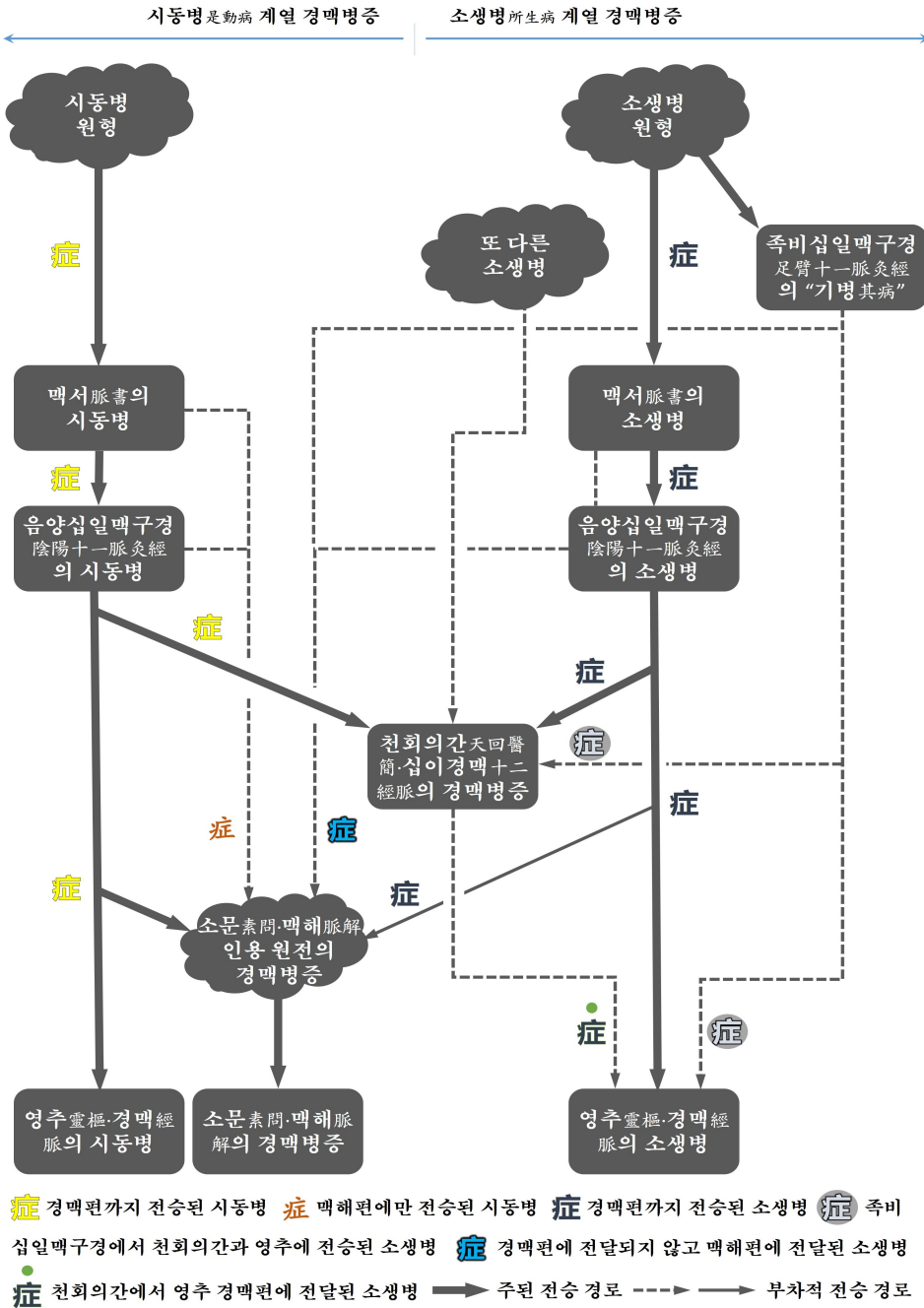


Figure 6.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foot Shaoyang and Jueyin meridians described in the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한대 문헌에 보이는 경맥병증의 전승 경로.

Table 1.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Jingmai*, one of the *Tianhuiyijian* manuscripts.

천회의간 『경맥』의 경맥병증

대응 경맥	원문의 경맥 명칭	시동병	소생병	비고
手太陽 小腸經				관련 조문이 남아 있지 않음
手厥陰 心包經				
手太陰 肺經				수태음맥인지 수소음맥인지 확정할 수 없는 1개 경맥의 일부 주행 묘사만 잔존
手少陰 心經				
手陽明 大腸經	臂陽明脈			주행 묘사만 남아 있음
足少陽 膽經	少陽脈			
足厥陰 肝經			癰, 遺溺	시동병 증상의 수가 11종임을 명시(영추·경맥은 5종)
足陽明 胃經	陽明脈	洒洒□		증상 묘사 앞에 “是動則病” 이란 문구가 존재
足太陰 脾經			煩心, 心痛, □□洩, 水, 閉, 黃痺, 股□□ □□□腫脹, 不臥, 强 欠, 大指不用	
足少陰 腎經			上氣, 噎乾痛, 煩心, 心痛, □內廉痛, 厥痿, 嗜臥, 足下熱	
足太陽 膀胱經	太陽脈		…… 膺皆痛	
手少陽 三焦經		…… 腫	目外顏腫, 耳後、肩、膺 後廉痛, 汗出, 中指不 用, 喉痺	후자의 증상이 “소생병”임을 명시. 증상의 수(7종)도 기 재.

Table 2. The three meridian related symptoms of *Jingmai*, one of the *Tianhuiyijian* manuscripts, and identical meridian related symptoms described in several Han dynasty medical classics.

천회의간 『경맥』의 3개 경맥 소생병과 한대의 여타 문헌에 등장하는 동일 경맥 소생병의 비교. 『영추·경맥』이 가장 근접한 형태를 보여준다.

경맥	문헌	원문	비고
족태음맥	족비십일맥구경	病足大指廢，肱內廉痛，股內痛，腹痛，腹脹，復□，不嗜食，善噫，心煩，善肘。	“其病”
	맥서	□獨心煩死；□□□腹脹，死；能食、者*卧、强吹，此三者同則死；滂泄，死；水與閉同則死。爲十病。	*者=嗜
	음양십일맥구경	□□，心煩，死；心痛與腹脹，死；不能食，不能卧，强吹，三者同則死；滂泄，死；水與閉同則死。爲十病。	
	영추·경맥	舌本痛，體不能動搖，食不下，煩心，心下急痛，滂瘕泄，水，閉，黃疸，不能卧，强立，股膝內腫厥，足大指不用。	13종 증상
	천회의간 『경맥』	煩心，心痛，□□洩，水，閉，黃疸，股□□□□腫蹙，不卧，强欠，大指不用。	10종 증상
족소음맥	족비십일맥구경	病足熱，膊內痛，股內痛，腹街、脊內廉痛，肝痛，心痛，煩心，咽□□□□舌坼□瘕上氣□□數喝，默默嗜卧以咳。	“其病”
	맥서	口熱，舌拆，噤乾，上氣，噎，噤中痛，瘕，耆卧，咳，瘕，爲十病。	
	음양십일맥구경	口熱，舌坼，噤乾，上氣，噎，噤中痛，瘕，嗜卧，欬，瘕，爲十病。	
	영추·경맥	口熱，舌乾，咽腫，上氣，噤乾及痛，煩心，心痛，黃疸，腸澼，脊股內後廉痛，痿厥，嗜卧，足下熱而痛。	13종 증상
	천회의간 『경맥』	上氣，噤乾痛，煩心，心痛，□內廉痛，厥痿，嗜卧，足下熱。	
수소양맥	족비십일맥구경	產聾，頰痛。	“其病”
	맥서	目外際痛，頰痛，耳聾。爲三病。	
	음양십일맥구경	目外眥痛，頰痛，耳聾。爲三病。	
	영추·경맥	汗出，目銳眥痛，頰痛，耳後、肩、臑、肘臂外皆痛，小指次指不用。	8종 증상
	천회의간 『경맥』	目外顏腫，耳後、肩、臑後廉痛，汗出，中指不用，喉痺。凡七病。	7종 증상

Table 3. The meridian-related symptoms of the *Jianbiemai*, a chapter of the *Maishu Xiajing* in the *Tianhuiyijian* manuscripts.

천회의간 『맥서·하경』 「간별맥」의 경맥병증

맥의 명칭	맥의 주행 (일부 추정)	병증
간별태양맥 間別太陽脈	공무니 → 허리 → 하악 → 상악	口潰, 腫口, 眇目, 上齒齲, 上脣痛, 顛狂, 背痛, 腰痛, 尻痛, 肱痛, 瘡, 癰
간별대음맥 間別太陰脈	공무니 → 허벅지 → 사타구니	臍上痛奏於心, 痛疽, 折癰, 遺溺
간별소음맥 間別少陰脈	생식기 → 하복부 → 위 → 간 → 인 두 → 혀뿌리	食、亢狼痛, 寒中, 內崩, 舌乾希
간별치맥 間別齒脈	(손등 →) 목의 윗 부분 → 하악	口潰、疹, 齲
간별비양맥 間別臂陽脈	목의 아랫 부분 → 머리의 귀 위쪽 부 분 → 뺨	顏、肩膊痛
간별비음맥 間別臂陰脈	옆구리 → 심장	缺痛, 心痛
간별육리맥 間別肉理脈	허벅지 → 어깨의 변연 → 관골궁	頰、胸、脅痛, 上氣, 頸痛, 髀痛
간별찬 間別贊	비강 → 콧등 → 코 끝	鼻乾, 頰痛, 胸脅痛, 膝痛
간별영맥 間別迎脈	목의 아랫 부분 → 결분 → 하악	缺盆痛
간별족대음 間別足太陰	외과 후연 → 장판 지 → 오금 외측 → 허벅지 아래 → 공 무니 외측 → 대양 太陽에 접속	外踝、踝上痛, 腓外廉、脾下痛, 尻外廉痛
족대양락 足太陽絡	견갑 하연 → 흉곽 을 선회 → 젖꼭지 아래에 접속	肩胛下廉痛, 胸衡痛
족양명맥지자 足陽明脈支者	얼굴·눈을 관통 → 미상 → 귀 뒷 부분	面痛, 目痛, 頭口痛, 夾頭外廉口口咽內腫辟口口 口口口口口口口口痛

IV. 고찰

2012년 사천성 성도시의 천회진(天回鎮, 속칭 老官山)에서 발굴된 의학죽간, 즉 천회 의간(天回醫簡)의 원문이 최근(2023년 2월 말)에야 전면 공개된 탓에 천회의간의 경맥 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소개 없이 바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고찰 결과를 기술한다.

1.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경맥병증 형성 과정

『황제내경·영추』의 「경맥」 편이나 마왕퇴(馬王堆) 출토 의서 『음양십일맥구경』에서 소위 시동병(是動病)과 소생병(所生病)을 구분하여 서술한 것과 달리 천회의간 『맥서·하경(脈書·下經)』의 「십이경맥」에서는 “기병(其病)”이라는 표현 아래에 별도의 구분 없이 일군의 증상을 나열하고 있다. 그림 1 ~ 5에 표시하였듯이 이들은 시동병과 소생병이 결합된 증상군이다. 일례로 수소음맥의 경맥병증을 「십이경맥」은 “心痛, 噎乾, 嗜飲, 脇痛, 臍陰痛. 手無氣, 癰腐但音.”으로 기술하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증상 가운데 심통(心痛)과 익건(噎乾), 기음(嗜飲)은 『맥서』, 『음양십일맥구경』,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시동병 증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협통(脇痛)은 『족비십일맥구경』의 “기병(其病)” 및 『맥서』, 『음양십일맥구경』,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소생병 증상과 겹치는 증상이다.

천회의간 「십이경맥」에 수록된 시동병 증상과 소생병 증상을 나누어 살펴보면, 시동병 증상은 대체로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의 증상을 계승하고 있지만⁹⁾ 소생병 증상은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의 소생병 증상 외에 『족비십일맥구경』의 “기병(其病)”에만 보이는 것도 있어 『족비십일맥구경』의 소생병

(소위 “기병”)도 「십이경맥」 경맥 병증의 한 가지 연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족비십일맥구경』에 수록된 족태양맥 경맥병증(“기병”) 가운데 구녹(軌衄)과 삭전질(數癲疾)은 「십이경맥」에 구녹과 전광(癲狂)으로, 「경맥」에 구녹과 광전질(狂癲疾)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두 증상은 『맥서』와 『음양십일맥구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경맥병증 중에는 『황제내경·영추·경맥』에 다시 수록되었지만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은 물론 『족비십일맥구경』에도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 「십이경맥」의 수소양맥 조문에는 청후통(聽後痛=耳後痛), 견통(肩痛), 노통(臍痛), 주통(肘痛), 비외렴통(臂外廉痛)이라는 5개의 증상이 수소양맥의 병증으로 등장하는데, 『황제내경·영추』의 「경맥」에는 수소양삼초경의 소생병 조문에 “이후·견·노·주·비외개통(耳後、肩、臍、肘、臂外皆痛)”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5개 증상을 모두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증상은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의 소생병(즉 “所產病”) 단락에 보이지 않고 『족비십일맥구경』의 “기병(其病)” 단락에도 보이지 않는 증상이다. 이는 『황제내경』의 소생병 조문이 형성되는 데 있어 『음양십일맥구경』이나 『족비십일맥구경』에 등장하는 소생병 증상 외에 또다른 소생병의 정보원(情報源)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현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천회의간 『맥서·하경』 「십이경맥」의 경맥병증은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으로부터 전승된 시동병(是動病) 증상, 소생병(所生病) 증상을 혼란한 내용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족비십일맥구경』의 소생병(“其病”)과 미지의 정보원으로부터 계승된 또다른 소생병 증상이 합쳐져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차위X궐(此爲X鑿)”

『황제내경·영추』 「경맥」 편의 시동병 조문

9) 『황제내경·영추』 「경맥」의 시동병 역시 『맥서』와 『음양십일맥구경』의 증상을 계승하고 있다.

일부에는 단락 끝 부분에 “시위X결(是爲X厥)” 또는 “차위X결(此爲X厥)”이라는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 수태음폐경과 수소음심경의 시동병은 비결(臂厥)이라 하였고 족양명위경의 시동병은 한결(鼈厥)이라 하였으며 족소음신경의 시동병은 골결(骨厥), 족소양담경의 시동병은 양결(陽厥), 족태양방광경의 시동병은 과결(踝厥)이라 하였다. 다른 6개 경맥의 시동병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는데 왜 여기에 소개한 6개 경맥의 시동병은 “X결”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였을까?

이는 이 6개 경맥이 수·족의 체표면에서 동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치를 통과하고(Figure 7), 이곳의 박동 이상(예를 들어 박동 감약)이 나타날 때 각 경맥의 시동병이 관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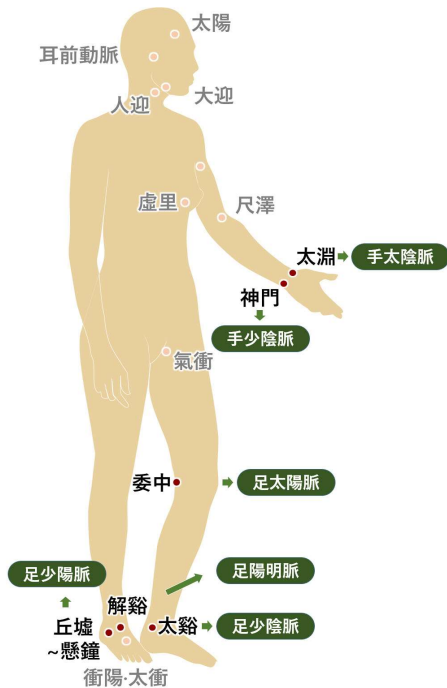


Figure 7. Arterial pulse palpation points on the body surface. 6 points (dark solid circles) are coincide with *Lingshu Jingmai's* "X Jue" points. 체표의 대표적 박동 촉진 부위. 진한 점으로 표시한 6개 지점은 『영추·경맥』의 “시위X결(是爲X厥)”이 표현된 경맥 노선 위에 위치한다.

그런데 그림 7(Figure 7)에 도시한 6개 경맥의 박동 부위 가운데, 고대 의가들이 경맥 이론을 정립할 때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위가 두 군데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족소양맥과 족태양맥의 박동처가 그것이다. 족소양맥의 박동처는 종아리동맥(비골동맥, peroneal artery)의 박동 촉진 부위에 해당하는데 그림에 표시한 다른 맥동 부위와 비교할 때 이 부위의 박동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누구나 쉽게 체표 박동처로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박동 촉진 위치에 개인차가 크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족태양맥의 박동처다. 발목 주변에서는 족태양맥의 박동 부위를 찾을 수 없다¹⁰⁾. 이러한 사실은 족태양맥 조문에서 그 시동병을 “과결(踝厥)”, 즉 “복숭아뼈의 결”로 지칭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회의간 『맥서·하경』의 「십이경맥」에는 족태양맥에 대해서만 “차위X결(此爲X厥)”이란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맥서』, 『음양십일맥구경』(갑본, 을본 모두)과 『영추·경맥』의 시동병 조문에서 모두 이 병증을 “과결(踝厥)”이라고 지칭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저자가 우연히 족태양맥에 대해 “차위X결”이란 표현을 누락했을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 설명한, 족태양맥 박동처를 발목 주위에서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족태양맥 시동병을 과결(踝厥)이라 지칭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고려가 문헌 편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천회의간 「십이경맥」에 보이는 편집상의 오류

천회의간 『맥서·하경』의 「십이경맥」에 기술된 경맥병증을 살펴보면 선행 문헌의 증상을 옮겨 적거나 참조하여 내용을 완성하는 도중에 오류를 범한 예가 보인다. 족태음경

10) 대신 무릎 오금 부위, 즉 위중(委中) 부위에서 박동이 확인된다.

의 시동병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맥서』는 “不能食，者臥¹¹⁾，強吹。此三者同則死。”(밥을 먹지 못하고 자려고 하며 힘을 써 숨을 내쉰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출현하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음양십일맥구경』은 “不能食，不能臥，強吹。三者同則死。”라는 표현을 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천회의간 「십이경맥」에는 “不嗜食，癢削，水，閉，善怒，心惕，善悲，善恐，不嗜臥，強欠，三者同，死。”라고 바뀌어 있어 불기식(不嗜食)과 불기와(不嗜臥) 사이에 많은 증상이 삽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십이경맥」의 문장을 보면 선공(善恐)，불기와(不嗜臥)，강흠(強欠)이 원문 삼자(三者)의 지칭 대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선공 증상은 바로 앞의 선노(善怒)，심척(心惕)，선비(善悲)와 같은 같은 부류의 증상，즉 정서 이상 증상이다. 따라서 선공 증상만을 떼어 내어 “삼자”의 지칭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십이경맥」의 저자가 선행 문헌을 수합하면서，끼워넣지 말아야 할 위치에 선행 문헌의 문구를 삽입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헌 편집 과정의 불완전성은 천회의간 「십이경맥」의 수태음맥 조문에도 보인다. 「십이경맥」의 수태음맥 조문¹²⁾은 경맥병증 설명으로 마무리되는데 문장의 끝 부분에 “차위비궤(此爲臂臑)”(이 증상들은 비궤이다)이라는 구절에 이어 “응통(膺痛)”이라는 증상 설명을 덧붙여 두고 있는데 이는 본문에서 한 번 언급된 증상(즉 胸痛)인데다 동종 조문이 “차위X궤(此爲X臑)”로 종결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어 잘못 삽입된 문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십이경맥」 편집상의 오류는 「십이

경맥」 편집자가 선대 문헌의 경맥병증을 통합하며 그 체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성급한 통합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이는 시동병과 소생병 증상을 혼합하면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십이경맥」의 편집자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한계는 수태양맥(手太陽脈 = 手太陽脈)의 경맥병증을 「십이경맥」에서 “소산병(所產病)”，즉 소생병으로 지칭한 것¹³⁾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른 경맥의 경맥병증에 대해서는 모두 “기병(其病)”이란 명칭을 사용한 반면 수태양맥의 경맥병증에 대해서는 이를 소생병 증상으로 경맥병증을 구성했기에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십이경맥」의 수태양맥 병증 가운데에는 후통(喉痛)，주통(肘痛)，비외통(臂外痛)이라는 소생병 증상과 함께 영종통(領腫痛)，견사부(肩似否)，노통(膈痛)이라는 시동병 증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두 계통의 증상이 혼합된 경맥병증을 소생병으로 지칭한 것은 「십이경맥」 편찬 시기에 이미 시동병과 소생병의 의미가 의가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황제내경·소문』 「맥해」 경맥병증의 구성

『황제내경·소문』의 「맥해」편에는 미지의 선행 문헌을 인용한 문장이 전편을 채우고 있다. 즉 “所謂X者”라는 형식으로 선행 문헌에서 인용한 문장(X)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구절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맥해」편이 인용한 선행 문헌의 원문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본 논고의 그림 3~5에 도시한 맥해편 경맥병증 서술은 그렇게 재구성된 문장들이다.

「맥해」편에 인용된 이 문장들을 보면 대체

11) 『음양십일맥구경』, 천회의간 「십이경맥」 및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상관 조문과 비교해 볼 때 “嗜臥”의 오기(誤記)임이 분명하다.

12) 臂太陰脈：繫手掌中，循臂內陰兩骨之間，上骨下廉，筋之上，出臂內陰，至腋入心。其病：心滂滂痛，詐肩痛，胸痛，癢，肘痛，心煩，疔，缺盆痛，四肢痛，甚則交手而戰，此爲臂臑，膺痛。

13) 手太陽脈：……其所生病：領腫痛，喉，背痛，臑痛，肩似否，膈痛，肘痛，頰痛，臂外痛，手背痛。

로 시동병(是動病)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맥해」편 태음맥(족태음맥) 조문에서 태음맥의 병증을 “病脹，上走心爲噫，食則嘔，得後與氣則快然如衰”라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창(脹), 식즉구(食則嘔), 득후여기즉쾌연여쇠(得後與氣則快然如衰)라는 표현은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시동병과 『음양십일맥구경』의 시동병 증상 표현과 겹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맥해」편 경맥병증 가운데 일부가 선행 원전의 소생병(所生病) 증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해」편의 궤음맥(족궤음맥) 경맥병증에는 퇴(癰), 열중(熱中)과 융(癰), 산(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증상들은 『맥서』, 『음양십일맥구경』과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소생병 증상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맥해」편의 경맥병증 조문은 시동병을 중심으로 하되 선행 문헌의 소생병도 일부 계승하여 전체 문장을 편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해」편의 시동병, 소생병 결합 양상은 천회의간 「십이경맥」에서 보이는 시동병, 소생병 결합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시동병, 소생병이 결합되는 현상은, 전한 중기 이후 시동병, 소생병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이러한 병증 구분의 배경을 이루는 진단 방법 역시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 생각된다. 천회의간 「십이경맥」과 『소문·맥해』의 피인용 문헌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두 문헌 모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헌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천회의간 「십이경맥」과 『황제내경·소문』 「맥해」의 경맥병증의 역사적 전승 관계를 그림 6(Figure 6)에 정리하여 도시한다. 향후 새로운 발견이 추가된다면 이 계통도에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임의의 요소를 추가하지 않은 최소한의 계통도를 그려보자면 그림 6의 형태가 된다 할 수 있다.

5. 천회의간 『경맥』에 수록된 경맥병증의 성격

천회의간에는 위에서 설명한 「십이경맥」 외에 두 건의 경맥 관련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수의학 문헌 『요마서(療馬書)』 죽간에 연결되어 따로 주목 받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분리, 동정된 『경맥』이란 문헌이고 또 하나는 『맥서·하경』의 「십이경맥」 뒤에 수록된 「간별맥(間別脈)」이란 문헌이다. 아쉽게도 이번의 연구에서는 이 두 문헌의 경맥병증이 선행 문헌 및 『황제내경·영추·경맥』의 경맥병증과 어떤 계통적 연계를 갖는지 의미 있고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림 6(Figure 6)의 계통도에 천회의간 『경맥』과 「간별맥」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는 두 문헌의 경맥병증 각각에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특징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하고자 한다.

우선 『경맥』에 수록된 경맥병증의 성격을 살펴본다.

천회의간 『경맥』에는 많은 결손 부분이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하더라도 해당 논점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남아 있는 내용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천회의간 『경맥』에는 시동병과 소생병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한다. 『경맥』에서 수소양맥의 경맥병증을 설명한 부분은 “……種。所生病：目外顏腫，耳後、肩、臑後廉痛，汗出，中指不用，喉痺。”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종(種)은 아마도 종(腫)의 가차자인 것 같고, 이 앞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종(腫) 자로 끝난 것을 볼 때 경맥의 증상을 설명한 단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소생병”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한 증상들이 이어진다. 아마 종 자까지가 시동병 증상을 설명한 단락이고 그 뒤에 소생병 증상을 모아 설명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한편 천회의간 『경맥』의 족양명맥 조문으로 현

재 남아있는 것은 “□上□貫乳，夾喉，回口，屬鼻。是動則病：洒洒□” 이와 같은 문장인데, 여기서 ‘족비(屬鼻, 코에 접속한다)’까지는 경맥의 주행을 설명한 부분임이 분명하고 이에 바로 이어서 ‘시동증병(是動則病)’이라는 익숙한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그 뒤로 ‘쇄쇄(洒洒)’로 시작되는 증상이 이어진다. 출토의서와 현행 『황제내경』을 참고해 볼 때, 아마도 ‘쇄쇄이한(洒洒而寒)’, ‘쇄쇄병한(洒洒病寒)’, ‘쇄쇄진한(洒洒振寒)’과 같은 문구가 기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 즉 수소양맥의 경맥병증 묘사와 족양명맥의 경맥병증 묘사를 종합해 보면 천회의간 『경맥』의 각 경맥 조문은 「경맥 주행 경로 → 시동병 → 소생병」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서술 형식과 동일한 것이다. 천회의간 『경맥』은 훼손이 많은 문서이기에 현재로서는 수소양맥과 족양명맥 외에 ‘시동증병(是動則病)’과 ‘소산병(所産病)’이란 표현을 적은 경맥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한대의 경맥 문헌이 전체 경맥에 대해 동일한 서술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때 다른 경맥에 대해서도 시동병과 소생병을 구분하여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많은 증상이 남아 있는 『경맥』의 족태음맥과 족소음맥 경맥병증 서술 단락(Table 1, 2 참조)을 보아도 시동병 증상의 혼입 없이 대체로 소생병 증상을 따로 모아 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천회의간 『경맥』의 경맥병증은 현존하는 전한시대 경맥문헌 중 가장 『황제내경·영추·경맥』에 근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Table 1)에 정리한 천회의간 『경맥』의 경맥병증 가운데 비교적 훼손이 적고 많은 문자가 확인 가능한 것은 족태음맥, 족소음맥, 수소양맥의 소생병이다. 이 3개 경맥의 소생병 묘사를 표 2(Table 2)에서 다른 전한시대 경맥문헌의 소생병 묘사 내용과 비교하였다. 이를 보면 『족비십일맥구경』, 『음양십일맥구경』, 『맥서』에 비해 천회의간 『경

맥』의 소생병 증상 묘사가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소생병 증상 묘사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본다. 족태음맥의 소생병 묘사를 보면 『맥서』와 『음양십일맥구경』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가 사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나 『황제내경·영추·경맥』에서는 소생병 기술의 일반적 형식에 맞게 대체로 족태음맥 주행에 따라 순서대로 족태음맥 관련 증상을 나열하였고 예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또한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족태음맥 소생병 증상에는 『맥서』, 『음양십일맥구경』의 소생병 증상이 고루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천회의간 『경맥』의 족태음맥 소생병 역시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천회의간 『경맥』은 현재 확인 가능한 전한 시대의 여타 경맥 문헌에 비해 『황제내경·영추』 「경맥」편 내용에 더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천회의간 『경맥』에서 각 경맥 소생병의 치료 수단으로 침과 뜸이 아닌 펴석과 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족결음맥의 소생병에 대해 “도합 11개 증상으로서, 오금을 열고(펴석으로 오금의 맥관을 절개하여 사혈하고) 정강이에서 복숭아뼈 위로 3촌 올라간 곳에 뜸을 뜨되 그 위치가 반드시 족태음맥 주변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¹⁴⁾고 하였고 수소양맥의 소생병에 대해서도 “도합 7개 증상으로서, 팔꿈치를 열고(펴석으로 팔꿈치의 맥관을 절개하여 사혈하고) 팔목에서 3촌 떨어진 곳에 뜸을 뜬다”¹⁵⁾고 하였다. 소생병에 대한 펴석 치료 외에 비대□(臂大□, 아마도 臂大陰일 것), 비양명(臂陽明), 비태양(臂太陽), 곡중대양(臑中大陽), 곡중대음(臑中大陰)이란 부위에 대한 제법(除法) 치료도 제시하고 있다. 제법은 「천회의간」에서 발법(發法)과 함께 그 지칭 대상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14) 凡十一病，啓郄，灸肝上踝三寸，必廉大陰之際。

15) 凡七病，啓肘，灸去腕三寸。

주요 치료법의 하나다.

6. 천회의간 「간별맥」에 수록된 경맥 병증의 성격

이어서 천회의간 「간별맥(間別脈)」에 수록된 경맥병증의 성격을 살펴본다.

천회의간 「간별맥」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떠한 경락 관련 문헌과도 다른 독특한 체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헌이다. 여기서 설명한 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자면, 상지의 음양맥(비양맥, 비음맥), 체간부의 태소음양맥(태양맥, 태음맥, (소양맥,) 소음맥), 하지의 양명맥(족양명맥)과 체표에서 비교적 단거리 주행을 하는 맥(치맥, 영맥, 욱리맥)에서 분리되는 맥을, 본래의 맥 X의 이름을 빌어 “간별X맥”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체간부 태소음양맥의 경맥혈¹⁶⁾(족대음, 족대양)과 기타의 특징 지점(贊=攢竹?) x에서 분리되는 맥을, 해당 지점의 이름을 빌어 “간별x”라고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러한 분리 주행 노선 가운데 선행 경맥 문헌에서 애초에 지맥으로 설정되었던 것은 “간별X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X맥지자(X脈支者)”로 표현한 듯하다¹⁷⁾. 아울러 분리 주행 노선이 인체를 세로로 흐르는 방향이 아닌, 가로로 흐르는 방향일 때는 “간별X맥”이나 “간별X”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X락”이란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¹⁸⁾.

히로세카오루(廣瀬薫雄)는 간별맥에 대해 『황제내경·영추·경맥』에 수록된 15대락과의 대응을 시험적으로 상정해 보았고¹⁹⁾ 『천회의간』 정리조는 간별맥노선이 『황제내경·영추·

경맥』에 등장하는 12경맥의 일부 분지(“其支者”) 또는 『황제내경·영추·경별』에 등장하는 경별(經別)과 관계가 있는 보았으나²⁰⁾ 15대락, 12경별, 12경맥 분지 모두 그 주행 양상이 천회의간 「간별맥」에 묘사된 간별맥의 주행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간별맥」이 현존 『황제내경』의 어떤 요소로 계승되었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간별맥」 체계의 전승이 단절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간별맥」의 경맥병증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간별맥」의 경맥병증은 각 간별맥이 통과하는 부위의 증상을 말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소위 소생병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별족대음’의 통과 위치는 □□踝後廉(足外踝後廉) → 腓□□(腓外廉) → 腓²¹⁾外廉 → 髀下廉 → 尻外廉 → 太陽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경맥병증(“其病”)은 外踝痛, 踝上痛, 腓外□痛(腓外廉痛), 腓外廉痛, 髀下痛, 尻外廉痛의 순서로 적혀 있다²²⁾. 이는 맥 순행 부위에 맞추어 해당 부위의 통증을 설명한 것인데, 앞의 주행 묘사와 대조해 보면 맥의 통과 위치와 통증의 위치가 모두 踝 → 腓 → 腓 → 髀 → 尻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Table 3)에 천회의간 「간별맥」의 주행 부위와 병증을 정리하였다.

V. 결론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천회의간 『맥서·하경』의 「십이경맥」에 등장하는 경맥병증은 소위 시동병(是動

16) 경맥의 이름과 동일한 명칭을 갖는 각 경맥의 대표 혈위. 족소음(=태계), 수태음(=태연) 등.

17) 천회의간 「간별맥」의 “足陽明脈支者”가 이에 해당한다.

18) 천회의간 「간별맥」의 “足太陽絡”이 이에 해당한다.

19) 廣瀬薫雄. 天回老官山漢簡《別脈》初探.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2020; 9: 326.

20) 天回醫簡整理組. 天回醫簡(下). 北京. 文物出版社. 2022. pp.48-51.

21) 오금, 즉 슬와(膝窩)에 해당한다.

22) 間別足大陰: 繫□□踝後廉, 上循腓□□出腓外廉, 出髀下廉, 上尻外廉, 屬太陽. 其病: 外踝痛, 踝上痛, 腓外□痛, 腓外廉痛, 髀下痛, 尻外廉痛.

病)과 소생병(所生病)이 융합된 증상군이다.

둘째, 『황제내경·소문』의 「맥해」에도 시동병, 소생병의 융합 현상이 일부 보이며, 이를 통해 전한 중기로부터 『황제내경』 편집 이전에 이르는 시기에 시동병, 소생병의 융합이 종종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황제내경·영추』의 「경맥」편에 보이는 소생병 증상 중 일부는 천회의간 「십이경맥」에만 보이며, 이를 통해 『족비십일맥구경』, 『맥서』, 『음양십일맥구경』과는 별도의 전송 과정을 갖는 소생병의 정보원(精報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천회의간 『경맥』에 등장하는 경맥병증은 지금까지 출토된 여러 한대 문헌의 경맥병증 가운데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경맥병증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천회의간 『맥서·하경』의 「간별맥(間別脈)」에 등장하는 경맥병증은 경맥 순행 부위의 증상, 즉 소생병의 성질을 갖는 증상군으로 보이나 그 성격을 정확히 구명하려면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공개된 천회의간의 경맥병증에 대해 처음 시도된 분석이다. 향후 공개 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천회의간과 『황제내경』의 경맥병증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VI. 참고문헌

1.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bamboo strip manuscripts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in Jiangling. The translated texts of the *Maishu*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in Jiangling. *Wenwu*. 1989. (7). pp.72-74.
江陵張家山漢簡整理小組. 江陵張家山漢簡《脈書》釋文. *文物*. 1989; 35(7): 72-74.
2. Gao Dalun. The correction and translation of the *Maishu*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Chengdu. Chengdu Press. 1922.
高大倫. 張家山漢簡《脈書》校釋. 成都. 成都出版社. 1992.
3. Hirose Kaoru. Preliminary study on the Biemai in Tianhui Raoguanshan Han dynasty bamboo strips. Excavated document and ancient character study. 2020. Vol 9. pp.316-328.
廣瀨薰雄. 天回老官山漢簡《別脈》初探.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2020; 9: 316-328.
4.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silk manuscripts excavated in the Mawangdui's Han dynasty tombs. The translated texts of medical documents excavated in the Mawangdui's Han dynasty tombs, part one. *Wenwu*. 1975. (6). pp. 1-5.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馬王堆漢墓出土醫書釋文(一). *文物*. 1975; 21(6): 1-5.
5. Ren Yingqiu. The index of phrases in the *Huandinei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6.
任應秋 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6. Zhang Weibo, Gao Yetao, Li Hongyan. Analysis of compiling date Huang di nei jing.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7. Vol.47, No.3. pp.173-176.
張維波, 高也陶, 李宏彥. 《黃帝內經》成書年代解析. *中華醫史雜誌*. 2017; 47(3): 173-176.
7. Zhou Yimou, Xiao Zuotao. Commentaries for the medical manuscripts excavated in Mawangdui. Tianjin. Tianj

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8.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8.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Tianhuiyijian. Tianhuiyijian (upper and lower volume). Beijing. Cutural Relics Press. 2023.

天回醫簡整理組. 天回醫簡. 北京. 文物出版社. 2022.